

전주시, 영화영상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영화영상 등 4개 사업 선정... 국비 3억원 확보

대한민국 영화 1번지인 전주시가 대한민국 영화영상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양성,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로 19년째로 영화 표현의 자유를 지켜온 전주국제영화제를 개최, 영화제를 통해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의 제작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영화산업 중심지로 주목을 받아왔다.

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영화영상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주 영화영상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케이터링 전문인력사업, 직능단체기업 찾아가는 채용연계 프로젝트, 전주산업단지 소재기업 기술사 임차료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총 4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고 주력 산업에 대응한 고용 지원을 실시하는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총 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영화영상산업과 식품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 양성된 인력이 우수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채용연계도 추진하게 된다.

먼저 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주 영화영상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디지털 영상기술 분야의 후반제작 사업현장에 요구되는 맞춤형 인력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훈련 목표 인원은 총 15명으로 수료한 인원의 70% 이상을 관련 기업에 취업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할 의사를 밝힌 영화영상 및 콘텐츠 분야 8개 기업과 약정도 체결했다.

또한 시는 (사)전주시소상공인협회와 함께 맞춤형 일자리 교육을 통해

호텔과 레스토랑 등 케이터링 사업과 식자재유통업체 취업을 지원하는 케이터링 전문인력 사업도 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주의 음식 산업을 이끌어갈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고용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 외에도 '직능단체기업 찾아가는 채용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기업에 대한 전략적 홍보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 구인자와 구직자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전주산업단지 소재기업 기술사 임차료 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의 근무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가 원도심 주민들이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시와 전주시공동체지원센터는 14일 전주시시혁신센터 1층 교육장에서 원도심 9개동 마을계획추진단을 대상으로 올바른 사업비 집행을 위한 사업 전 집합교육을 했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로 행정기능이 이탈하고 주거기능이 약해지면서 침체된 원도심의 각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해 마을이 지닌 자원과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금암동과 덕진동, 동서학동 3개 동에서 마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앞서 마을계획이 수립된 노송동과 안산동, 인후2동, 중앙동, 진북동, 풍남동 6개 동에서 계획을 실행에 옮기

게 된다.

이날 시는 교육에 참여한 각 동 마을계획추진단장과 실무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각 추진단이 사업 목적과 기준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기준 및 교부 신청 절차를 설명하고 사업비 집행 우수사례 등을 안내했다.

향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법 관련 9개동 마을계획추진단 현장 방문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마을계획 관련 전문 PM과 마을활동가를 배치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오는 30일에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9개 마을계획추진단 합동발대식을 갖고 상호 교류를 통해 각 동 추진단이 호혜적 경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예정이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마을계획추진단 사업 전 집합교육

전주시가 원도심 주민들이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시와 전주시공동체지원센터는 14일 전주시시혁신센터 1층 교육장에서 원도심 9개동 마을계획추진단을 대상으로 올바른 사업비 집행을 위한 사업 전 집합교육을 했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로 행정기능이 이탈하고 주거기능이 약해지면서 침체된 원도심의 각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해 마을이 지닌 자원과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금암동과 덕진동, 동서학동 3개 동에서 마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앞서 마을계획이 수립된 노송동과 안산동, 인후2동, 중앙동, 진북동, 풍남동 6개 동에서 계획을 실행에 옮기

게 된다.

이날 시는 교육에 참여한 각 동 마을계획추진단장과 실무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각 추진단이 사업 목적과 기준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기준 및 교부 신청 절차를 설명하고 사업비 집행 우수사례 등을 안내했다.

향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법 관련 9개동 마을계획추진단 현장 방문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마을계획 관련 전문 PM과 마을활동가를 배치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오는 30일에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9개 마을계획추진단 합동발대식을 갖고 상호 교류를 통해 각 동 추진단이 호혜적 경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예정이다.

채규남 기자

무주읍 용포리 도로주변에 건축폐자재 수개월째 방치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도로주변에 건축폐자재가 수개월째 방치돼 보는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도로가 주변에 건축폐자재가 수개월째 방치돼 있는데도 누구하나 치우지 않아 주변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청정 반딧불 도시 무주라고 외치지만 도로가 주변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쓰레기가 버섯이 수개월째 방치된 채 쌓여 있어 관광객들에게 무주군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로가에 버려진 쓰레기는 단속이 느슨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도로주변에 건축폐자재가 수개월째 방치돼 있어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전주시, 주택가격 열람기간 4월 3일까지 운영

전주시는 15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기간을 운영,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발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시청 세정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작성해 열람한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현지 방문해 재검증을 하고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이후 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인 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약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진다.

최종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와 국제(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표로도 활용된다.

채규남 기자

고준희양 친부·동거녀 법정서 책임 떠넘겨

두 번째 재판 고씨 "때린 적 없다" vs 이씨 "죄 덮어씌운다" ... 이씨 모친, 공소사실 모두 인정

'고준희양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두 번째 재판에서 친부와 동거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재 부장판사)심리로 14일 오전 준희양 친부인 고모(37)씨와 동거녀 이모(36)씨, 이씨 모친 김모(62)씨 등 3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두 번째 열린 재판에서 고씨는 "나는 준희를 사랑에 이르기까지 때린 적이 없다"며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했다. 또한 "지난해 4

월 24~25일은 제 딸을 발로 밟았던 적이 없다"며 "당시 준희는 앉아있을 수도 없는 상태로 누워서 생활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씨는 왜 제가 준희를 발로 밟고 때렸다고 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내연녀 이씨는 "준희양에게 단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준희가 고씨로부터 폭행과 학대 당하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보호했어야 했는데 제가 방임하고 방관해 준희를 세상 떠나게 해 깊이 반성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준희를 어떻게 보살폈는지 고씨가 누구보다 더 잘 알 텐데 왜 저에게 죄를 덮어씌우는지 모르겠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 시신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준희양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아 같은 달 24일 자정께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8일 준희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 날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으로 이통해 준희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8일 허위 실종신고를 해 3000여 명의 경찰력과 수사력을 낭비하게 했다.

아울러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1 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이씨의 모친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 다.

이삼민 기자

전주시, 국제안전도시 자살·낙상 예방 분과위 간담회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나선 전주시가 자살과 낙상 예방을 위해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는 1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자살·낙상 예방 분야 관계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실무 분과위원회 간담회를 열었다.

국제안전도시는 지역사회의 손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공동체가 협력해온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간담회는 국제안전도시 인증

최종관문인 현지실사가 오는 5월초로 예정된 가운데 전주시 국제안전도시 자살·낙상 예방 실무분과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자리다.

시는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안전진진 관계자외의 미팅 △안전도시사업 보고회 및 실사 평가회 △안전진진 프로그램 현장 방문 등으로 진행되는 현지 실사를 준비한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교통안전, 학교, 어린이, 방범, 폭력예방, 재해, 재난 예방분과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임실서 단독주택 화재 50대 여성 사망

14일 오전 4시54분께 임실 신평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집에 있던 A(55,여)씨가 사망하고 소방서 추산 9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남편인 B씨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자 불을 피해 화를 면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삼민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